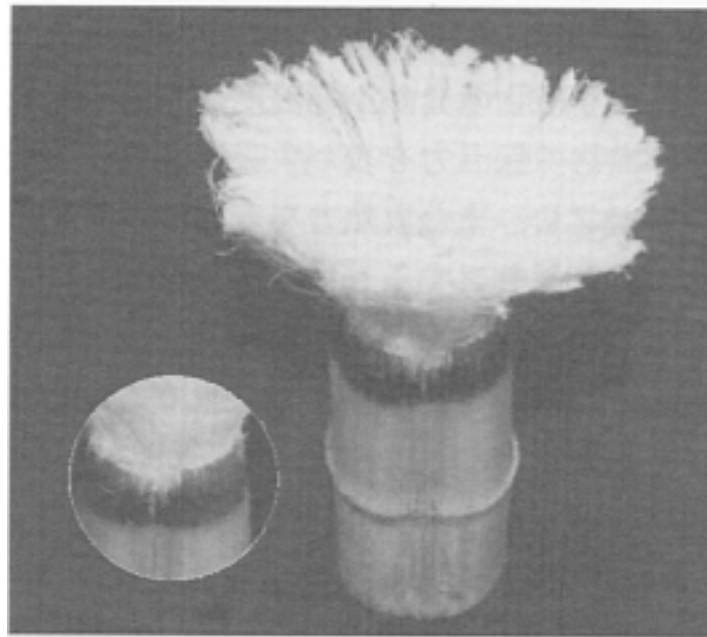


천연죽(天然竹) 100% 섬유 사용 소재

「자연보(自然譜)~죽의 조율~」

「자연보~죽의 조율~」은 대나무 자체를 비스코스 제법과 상관없이 개섬, 섬유화한 100% 죽섬유를 사용한 천연 소재이다.

죽섬유라는 것은 이미 수년전부터 시장에 출시되었으나 대나무 그 자체를 섬유화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곤란하다는 것이 이전까지의 통념이었다. 「자연보~죽의 조율~」은 비스코스 제법이 아닌 대나무 그 자체를 섬유화하여 개섬하는 중국의 특수 기술이 뒷받침된 100% 천연 죽섬유를 사용하고 있다<사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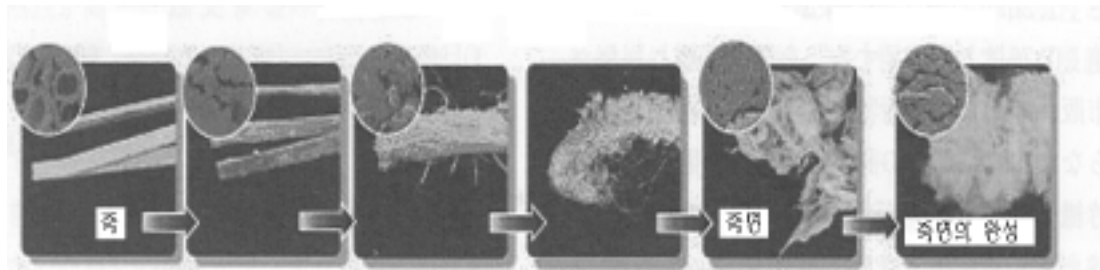


(사진 중 하부는 대나무 그 자체이고 상부는 특수 기술에 의해 섬유화시킨 것으로, 100% 죽섬유 그 자체로부터 섬유화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1> 「자연보~대나무 연구~」에 사용되는 죽섬유

원료인 대나무는 일본에서도 잘 알려진 맹종죽(孟宗竹)으로 최근에는 그 성장력이 빠르고 강하기 때문에 재생산이 가능한 천연 바이오매스 자원으로 써, 또한 공업화 된 지구를 구하는 재생 자원의 하나로써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환경을 배려한 소재일 뿐만 아니라 천연의 항균성과 청량감이 있으며 독특한 태가 특징으로 면과 혼방하여 드레스셔츠 또는 캐주얼 의류, 니트, 침장류, 손수건, 타올 등으로 전개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 2> 죽섬유가 되기까지의 공정